



즉시 배포용: 2015년 12월 3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2015년 추수감사절 주말 기간 동안 음주 및 과속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발한 주 경찰 단속 결과 발표**

**위험한 운전자에 발급된 티켓 14,000건 이상, 2014년 때보다 발급된 티켓 30% 증가, 휴일
캠페인 기간 동안 약 220건의 음주 운전자 체포(DWI)**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경찰서가 올 추수감사절 주말 동안 강화된 단속 노력을 통해 14,000건 이상의 티켓을 발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속 기간은 2015년 11월 25일(수)부터 2015년 11월 29일(일)까지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음주 및 과속 운전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 경찰이 이번 휴일 동안 이 위험한 운전자들을 도로에서 내몰고 불필요한 비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경찰관들은 과속 5,910건, 신호위반 715건을 포함, 추수감사절 캠페인 기간 동안 총 14,468건의 티켓을 발급했고, DWI 혐의로 체포한 건수는 총 218건이었습니다. 주 경찰은 과속, 신호위반, 미성년자 음주운전 및 부주의한 운전이 초점을 맞추고, 뉴욕에 걸쳐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이 노력은 고정 음주 단속 지점과 미성년자 음주 이니셔티브, 그리고 주행 중 휴대폰 통화 및 조작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종합 프로그램인 "Operation Hang Up"(운전 중 통화금지)를 통합했습니다. 휴일 주말 동안 5,000대 이상의 차량이 이 단속지점을 통과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일반적으로 일년 중 가장 교통량이 높은 기간인데다 주류 소비 확산으로 인해 충원된 경찰 인력은 주 전역에 걸쳐 수백만여 명의 여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추수감사절 주말 동안, 뉴욕주 단속반이 발행한 티켓 건수는 음주운전(DWI) 위반 구속 172건, 과속 4,237건, 신호위반 565건입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전국에서 301명의 여행자들이 휴일 주말 동안 교통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주 경찰은 전년 동기 한 건의 사망을 초래한 치명적인 사고를 조사했습니다. 이 캠페인 기간 동안 뉴욕주 단속반은 1,100건 이상의 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